

아이디어 창출 및 발명의 발상기법



강신록 · 새생각회 회장

기록하라, 잊기전에 늦기전에

아이디어가 떠오르면 곧 기록하라. 떠오른 생각을 20분만에 그 40%를, 24시간 후에는 70% 이상을 잊어버린다고 한다.

링컨은 모자 속에 종이와 연필을 넣어 두고, 언제든 기록할 수 있게 했다. 링컨의 모자는 움직이는 사무실(그림1)이었다.

슈베르트는 마음 속에 항상 아름다운 악상이 흐르고 있었다. 그는 그것을 손닿는 곳이라면 어디에나 적어 나갔다.

어느 때는 식당의 식단표에, 어느 때는 저 서있는 마차의 뒤에까지 적었다.

갑자기 떠오른 아이디어는 시간이 흐르면, 다시 잠재의식의 세계로 빠져버리므로, 단단히 의식의

위에 붙잡아 두자면 곧 기록해 둘 일이다.

본업은 버리지 말라. 발명은 취미삼아 하라. 기록광은 되라. 그러나 발명광은 되지 말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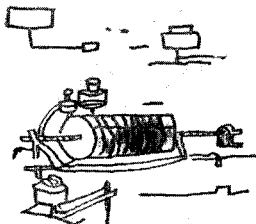
세계의 뛰어난 발명가들은 모두 기록광들이었다.

기록하지 않고 성공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기록은 후일에 아이디어의 재료가 되는 것으로, 생각할 때는 이것은 기발한데 하고 생각하나, 시간이 흐르면 자꾸자꾸 결점이 눈에 띈다. 그러나 결점이 나타나더라도 걱정할 것은 없다. 그것을 고칠 아이디어를 내면 되기 때문이다.

어떤 이는 잠자리에 들기전에 항상 머리맡에 두대의 녹음기를 두고 생각난 것, 꿈에 본 것을 그 자리에서 녹음한다고 한다. 많은 사람들은 잠자리에서 더오른 금싸라기같은 아이디어를 아무 미련 없이 놓쳐버리고 있는 것이다.

B씨는 항상 백지의 쪽지를 주머니에 넣었다가, 산책하면서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문제와 조금이라도 관련이 있다고 생각한 것을 보고 들으면, 그것을 기록해 두는 습관을 붙이고 있었다. 얼마전의 일이다. 그는 야광 플라스틱제품에 흥미가 있었기에, 무엇인가 이 방면의 신제품은 없을까 하고 열심히 생각하고 있었다. 야광 부표, 야광 손잡이, 야광 광고 등은 이미 낡았다.



에디슨의 설계도



링컨

(1)

며칠 전 그는 회사에서나, 집에서나, 걷고 있을 때나, 닥치는 대로 생각난 말을 쪽지에 적었다. 지하실, 벽장, 자동차, 밤, 비, 물, 침실, 침대, 침실용 물건, 이렇게 연상되는 말을 적어 나가다가 문득 생각났다.

“그렇다, 어둠 속에서도 보이는 물건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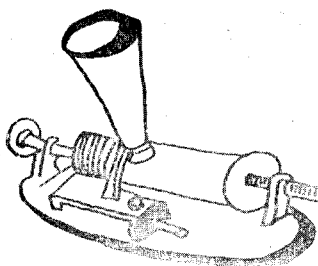
그의 아내는 항상 밤중에 어둠 속에서 물건을 찾느라고 애쓰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해서 그의 야광 물건을 제품의 하나에 더하여 성공했다.

실용적인 것을 발명하라

에디슨처럼 인간생활을 송두리째 바꿔 놓을만큼 향상시킨 인물은 없을 것이다.

전등, 전화, 전신, 축음기, 영화, 타자기 등 모두 그가 발명했다.

우리들의 생활이 이렇게 편리하게 된 것은 에디슨 같은 발명가들의 덕택이다. 에디슨은 평생에 1,919가지의 특허를 얻었다. 그 가장 처음 것은 1868년 투표 기록기로부터 시작됐다. 전신기사로 있던 시절에 그는 국회의 투표가 시간을 허비하는 것에 마음이 걸렸다. 그래서 능률을 올리는 기계를 만들고 싶었다. 이것을 깨끗하게 완성시켜 특허까지 내어 국회에 팔러가서 뜻밖의 경험을 했다.



에디슨의 최초의 축음기 (1877)

(2)

국회의원들은 그 편리함에는 놀랐으나, 위원장의 반대로 채용되지 않고 말았다.

“이 기계를 쓰면 소수당의 단 하나의 무기인 투표연장의 길이 막힘으로 다수당의 횡포를 도와주게 된다.”

는 것이 그 이유였다.

이 실패에 넋더리가 난 그는 발명에 대한 하나의 교훈을 얻은 셈이다.

“이제부터는 널리 세상이 필요로 하거나 유용하다고 인정되는 발명에만 시간과 노력을 기울인다.”

이것이 그 뒤에 그가 대성한 비결이었다.

그 화려한 발명의 성과는 투표기록기가 실패한 지 3년만인 1871년에 발명한 레밍턴식 타자기로 속기가 되고 능률이 오르는 실용품인 점에 있어 실용의 교훈을 이룬 것이다.

1876년에는 전화의 특허를 냈다. 그러나 예고 뿐이어서, 두 달 후에 모형을 완성한 벨이 전화의 발명가로 인정됐다.

그것에 송화장치를 완성해 실용할 수 있게 된 것은 에디슨이었다.

1877년의 어느 날 아침, 뉴욕의 과학 잡지 편집장 앞에 종이 보따리를 든 에디슨이 나타났다.

“그게 뭐가?”

“괜찮으니 여길 돌려 보게나!”

편집장이 조심스럽게 돌리려니까 속에서

“안녕하십니까? 축음기를 어떻게 보십니까?”

하는 사람소리가 나지 않는가? 새파랗게 칠된 편집장은 조심조심 보따리를 풀었다. 축음기(그림 2)의 소문은 삼시간에 각 신문사에 퍼지고, 기자와 호기심에 찬 시민들이 모여 들었다. 너무나 밀려들어 마루가 꺼질까봐 전람설명회를 줄줄하고 말했다. 이것은 에디슨이 가장 사랑한 발명품인 축음기의 이야기이다. 발특 9611